



마지막 회 마음속 하나님의 집 평수를 넓히자

썩음을 입후에서 입문까지 계속하고 끝내고 난 뒤에도 한 달 정도 누런 고름과 진물이 계속해서 나왔다. 배 위에서 뜨거운 썩음이 살을 태울 때 고통을 느끼면서 내 몸속에 죄가 이렇게 많은가보다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고통스런 나날들을 보내면서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각오를 다졌다.

똥을 뜨다보면 무릎의 단계가 온다고 한다. 그 무릎의 단계를 3번 넘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도저히 혼자 때리는 안 될 것 같아 전문가를 찾아가서 똥을 뜨다. 드디어 그 무릎의 단계까지 맛을 보게 되었다. 전문가가는 내가 그동안 똥을 떠 온 이야기를 듣고는 "당신을 독종처럼 가입시켜주겠다"고 하기에 한바탕 크게 웃었던 기억이 있다.

마귀는 낙심과 절망을 먹고 더욱 강해진다

그 해 모진 겨울이 그렇게 가고 이른 봄이 찾아올 무렵에 창녕군 남지읍에서 경락맞사지 삼을 운영하는 집안의 형수님께서 옷수선을 하려고 오셨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몸 아픈 얘기를 했더니 마사지 받으러 남지에 한번 와보라 하여 쉬는 날 시간을 내서 혹시나 하고 찾아갔다. 맞사지를 받으러 또 아픈 곳에 통증이 왔다. 물론 썩음의 고통에 비하면 견딜만한 아주 작은 고통이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아픈 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다. 맞사지를 받으며 풀어진 근육은 또 일을 하면서 긴장을 하게 되니 근육은 또 붓고 아팠다.

이런 세월이 6년이 지났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쓴 것은 주님의 보광 후에 실망과 슬픔에 빠지자 그 똥을 노리고 찾아온 병마(病魔)가 얼마나 강한 놈인가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마귀는 절망과 좌절을 양식으로 먹고 산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시술법의 별 치료법을 다했지만 몸과 마음은 구세주께서 계셨을 때만큼 회복되지 않는다. '마음이 병이라더



구세주 회회성남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는 영광을 가졌다

니 혹은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아픈 것은 낫지 않고 계속되는 것 아닐까' 라는 깨달음이 왔다. 내가 왜 아프기 시작한 것인지 더듬어 살펴보았다. 바로 구세주께서 보광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 온 좌절과 실망으로 시작한 마음의 병(죄)이 누적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구세주의 말씀이 더욱 크게 마음에 와 닿았다.

나의 병이 좌절과 실망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아차린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다

주님의 보광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아픈 고통만큼 성숙한다" 하나보다. 나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 이후로 그제야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예전처럼 기도를 해도 병마가 해결되지 않으니 '왜?' 라는 의문이 끊이지를 않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고 나라라는 마귀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몸이 이렇게 아프기 전에는 제단에 다니시는 집사님들이 아프다고 할

때,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아플까?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았었다. 그렇게 아픈 고통을 느껴보지 못했기에 그런 것 같았다.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6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결국엔 나를 죽이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 몸 아픈 것이 낫지를 않고 계속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바로 보라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 불교에서 말하는 경성(鏡性)도 결국 경상도 말로 "자기 피라서니를 바로 보라"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망가지지 말고 신앙의 중심을 제대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면 또 다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에 신중을 기해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야 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렸으니 이제 맨 주먹으로 다시 시작해서 가야 한다.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위해 욕심을 불려나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그 욕심을 버리고 마음속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집의 평수를 넓혀야 한다. 매일 매일 조금씩...* 황국성 승사 / 마산제단

하늘의 섭리가 있는 곳, 밀실이야기 첫회, 어머니를 따라 소사신앙촌에 입주하다

나는 1939년에 태어났다. 내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 동생이 셋이 있다. 딸로서는 큰딸이다. 우리집은 인천 소래였는데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다.

부모님과 나는 인천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는 막내를 출산할 때 아이가 잘 안 나와서 제왕절개수술을 하였고, 그때 봉합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 후 유증으로 계속 몸이 아팠었다. 어머니의 아픈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건강이 안타까워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어머니는 아픈 몸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셨지만 몸이 좋아지지는 않았다. 끔찍한 삶이라 수술을 할 수도 없었다.

박태선 장로를 만난 후 신앙촌에 입주하다

한편 1955년부터 불의 사자 박태선 장로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박 장로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소문이 어머니의 귀에도 들리게 되어 어머니는 병을 나으려고 박 장로의 집회에 찾아다니게 되었다. 박 장로님이 서울 한강에서 집회를 하면 한강 백사장으로 달려갔고, 남산에서 집회를 하면 남산으로 달려갔고, 노구산에서 집회를 하면 노구산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박태선 장로를 따라다녔지만 어머니의 병이 완쾌되지는 않았다.

내가 박 장로님을 만나게 된 때는 내 나이 17살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박태선 장로의 집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 집회에서 하나님의 향취도 맡는 등 여러 가지 은혜 체험을 하였다. 당시 박 장로님은 집회에 온 사람들에게 머리엔 안찰을 해주셨는데 서로 먼저 안찰을 받으려고 다투었다. 나도 머리 안찰을 받았는데, 안찰을 받으면 은혜가 왔다. 하루는 박 장로님이 머리 안찰을 해주신 후 저만치 가시더니 또 다시 오셔서 한 번 더 안찰을 해주신 적이 있다. 너무나 감사했다.

박 장로님의 집회에는 한번 갔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몰랐다.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고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하면 그 자리를 헛가게 되었다.

박 장로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 몇몇이 잔지공장을 하던 곳에 전도관을 세웠

다. 어머니와 나는 그곳으로 가끔 예배를 보러 다녔고, 나중에는 그곳에 인천 제단이 세워졌고, 박태선 장로님은 토요일마다 새벽에 오셔서 예배를 보셨다.

당시 박태선 장로로부터 불성신을 받은 어르신이 인천제단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신앙촌으로 들어 가라고 하신다고 하여 우리 가족도 소사신앙촌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전답을 팔아 소사신앙촌으로 들어갔고, 그때는 신앙촌을 건설할 때라 나도 건설대원이 되어서 신앙촌 건설 노동을 하였다. 나는 몸이 허약한 편이라 건설대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너같이 약한 사람은 여기서 못 견디면서 편지를 주기에 어디 한 번 해보고 그런 말을 하라고 하여 삼을 들고 땅을 파고, 질퍽을 지고 흙을 퍼 날랐다. 하나님의 성신의 힘으로 약골인 나도 힘든 노동을 이겨내며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앙촌은 순전히 사람의 노동으로 지어진 집들이다. 모두 사람 손과 발을 이용하여 지은 것이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모여들었고, 그들은 손과 발을 이용하여 사람 키로 두 길이나 파서 주춧돌과 구덩이를 놓고 집을 지었다. 퍼낸 흙과 돌을 머리에 이고 날랐다. 신앙촌 형제들이 머리에 돌을 이고 가는 개미떼 같은 모습은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다.

신앙촌 건설대에는 대학생들이 많았다. 영모님은 매일 아침 건설대원들을 모아놓고 힘을 주시는 말씀과 안수를 해주셨다. 그들은 신앙의 힘으로 힘든 길 모두 이기고 신앙촌 건설을 열심히 하였다. 건설대에는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산을 정리하고 들어온 우리집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돈을 받아서 밥을 해먹고 살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지은 집 중 씨디(CD)동에 입주할 수 있었다. 물론 공짜가 아니라 전답을 팔아서 구입한 것이다.

그러다가 영모님께서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구속되자 건설대원들 중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영모님이 구속되자 신앙촌 식구들도 많이 흔들리게 되었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미싱을 가지고 자수(刺繡)를 놓았다. 당



김동원 권사

시 신앙촌 수(繡)는 인기가 좋았다.

나의 어머니는 열심쟁이 신앙인으로 박태선 장로님을 열렬히 따랐는데 신령한 꿈도 많이 꾸게 되었고, 꿈 내용을 사람들에게 말하다보니 마귀로 취급을 받게 되었다

나의 어머니는 열심쟁이였다. 어머니는 박태선 장로님을 지극정성으로 믿었다. 예배를 보러 오만제단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찬송하며 손뼉을 쳤다. 예배가 끝나면 박 장로님에게 인사하러 부리나케 박 장로님 타신 자동차로 달려가서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신령한 꿈을 많이 꾸었던 모양이다. 영모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다는 내용의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곤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신앙촌 식구들에게 마귀라고 찍히게 되었다. 박태선장로를 믿는 신앙촌에서는 꿈이야기를 잘못하게 되면 마귀로 왕따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나의 어머니도 천사마귀가 들렸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마귀가 되어버렸다. 우물거게 물을 뜨러 가면 마귀가 왔다고 멀리 피해버렸다. 물론 그러다 보니 물도 흡족하게 길어올 수 있어서 좋기는 했지만 어린 마음에 좀 마음이 안 좋았다.*

김동원 권사 / 본부제단

성경 고린도전서 15장51장 이하에는 하나님의 신이 부활하는 시대에 썩을 양식을 먹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 시대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시대이며 계시록2장7절~3장21절에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경에는 죽음이 없는 세상을 예언하고 있는데 다음 구절들은 깊이 있게 살펴볼 일이다.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 리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한 것이 응하리라.(중략) 사망의 썩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고전 15:51~56)

이제그대로 사망을 이긴 자 구세주 메시아 생미르복께서 가지고 나오시는 감로 이슬성신이 죄와 사망을 소멸하는 성령이니 인간속의 모든 악령을 제거하면 온 세상 마귀도 다 소멸되어 다시는 사망과 고통이 없는 지상천국의 세상으로 변화되어 음양의 양극성이 없어지고 극한의 춥고 더운 기후가 없어지고 사시장춘의 불 날씨가 된다고 격암유록은 예언하고 있다.

계시록에 예언한 바 둘째 사망을 없애

새연재



감로의 도 ⑤

제2장. 감로이슬의 주인공

버리는 감로이슬 만나의 주인공 이긴자 구세주 메시아가 어린양이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자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자이며,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이다(계5:9, 계8:1~2, 계10:4~7).

이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기 전까지 먹고 살았던 만나에 대하여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예언하기를 이긴자가 나타날 때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만나와 생명과 일을 먹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계2:7, 계2:17)

감로이슬이 내리는 시점은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의 주인공 되신 이긴자 구세주가 출현할 때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긴자 구세주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인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감로이슬의 주인공을 바로 알고, 불사영생에 이르는 감로의 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그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며, 감로의 주인공이 출현하였다는 것은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사야 41장4절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命定)하였느냐.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본부제단 예배 시에 나타난 감로 사진

하는 말씀과 이사야 43장11절에 "나(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말씀에서처럼 마지막 이긴자 역시 하나님이 인간 속의 죄를 소멸하고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감로이슬의 역사를 하시게 된다.

또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하시며(요14:16),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치 못한 것을 폐하리라(고전13:10)는 말씀을 볼 때 온전한 영생의 진리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신을 모신 이긴자 메

시아 미르복밖에 없다.

예수의 제자 사도 바울이나 계시록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온전한 진리의 주인공이 예수 이후에 출현할 것을 예언하였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성경에 기록된바 하나님이 예언한 약속의 땅이다(이사야 41:1~9). 나아가 단지파(단군)민족(창49:16~18)을 통하여 심판자 구세주의 출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구세주 민족이다.

이를 증거하는 것이 이긴자 메시아 미르복께서 감로 이슬성신을 가지고 이 땅에 출현하여 영생의 진리 말씀으로 만국을 천사(인류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기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다. 물론 격암유록의 예언이나 불경속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

구세주 메시아가 감로를 증표로 가지고 출현한다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사야 34장6절의 말씀처럼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짚을 맞추어 해석할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예로써 창세기 2장 2절의 하나님이 쉬는 안식일이 이제라 함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하는 베드로후서 3장8절의 말씀과 짚을 맞추어 풀어 볼 때 7천 년 대가 되어야 하나님이 영원히 쉬는 안식일이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메시아 구세주가 출현하는 시기는 옛세계 사람을 지었다는 6천 년대이며, 계시록 20:4~6절의 말씀에서처럼 참구세주가 출현하여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세상 마귀를 완전히 소멸한

후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맞이하는 때이다. 격암유록에는 이보다 정확하게 20세기 후반에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한다고 예언하고 있으며 석가 이후 3천 년에 미르복이 출현한다고 예언하고 있다(격암유록 말문론).

곧 태초 이후 6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자신이 죄의 인간을 점령하여 그 속의 죄를 소멸하고 참 사람 이긴자 메시아가 되어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 때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과일이 되는 감로이슬성신을 만민들에게 부여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베후3:8, 창1:26~31, 창3:22, 계2:7~3:21, 계20:4~6, 요엘2:28~30)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예수교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알고 있으나 참구세주 메시아 미르복은 예수 이후 200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새로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어 새로운 말씀이 되는 불사영생의 진리를 말씀하신다.

또한 구세주가 만국을 다스릴 철장의 무기이며 증표인 감로이슬로써 사망의 영(신)이 되는 음양의 우주 기운을 소멸하고 중성의 하나님의 기운으로 변화시켜 우주만물을 원래 하나님의 세계로 회복시킨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천년왕국의 시작이요, 7천 년대에 가서 하나님이 쉬는 안식일이 되며, 완전한 하나님의 빛의 세계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세계, 영원한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서보복 승사 / (주) 해동 대표